

‘저항’이라는 키워드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찰하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일상이 그리스 로마 신화 – 저항의 계보

한호림 지음

학창시절에 읽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는 신비로우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였다. 신들이 벌이는 전쟁과 질투, 사랑 등은 인간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우리의 전래 동화와는 결이 다른 서사적 즐거움을 선사했다.

무엇보다 특이했던 점은 신들이 지닌 인간적인 요소들 이었다. 어떻게 보면 인간들보다 더한 희로애락과 애유정을 가지고 있었다. 신을 통해 인간을 볼 수 있고, 인간을 통해 신을 볼 수 있는 요인이 그리한 면과 무관치 않았을 터다.

그리스로마 신화 가운데 시시포스가 있다. 그는 신이 아니고 인간을 대표해 신에게 대항했던 인물이다. 머리가 비상한데다 신들에 대한 반항적 기질이 강했다. 결국 그는 굴러 떨어지는 거대한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는 행렬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저간의 사정을 자세히 아는 경우는 드물다. 기존의 전통적이고 문법적인 그리스로마 신화를 접근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면 무궁무진한 상상력이 열린다. 텍스트 새롭게 읽기, 새롭게 사유하기가 필요한 이유다.

저자에 따르면 대부분 그리스 로마신화에 관심이 없었던 50~60년대 시절,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키웠다. 캐나다에 살게 되면서 서양 문화의 핵심이랄 수 있는 그리스로마신화와 연계된 흔적, 기원들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카메라로 담아낸 사진의 양만 해도 세계 넘버원이라 자부할 만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만큼 그는 ‘그리스로마신화 자체’다.

저자는 제우스, 가이아, 아프로디테, 프로메테우스를 통해 절대 권력 이면에서 벌어지는 저항의 현장을 주목한다. 인간들 세계에서도 그렇지만 신들의 세계에서도 저항, 특히 기준 질서에 반하는 투쟁은 기준 질서와는 다른 변화의 가능성을 노정한다.

언급한 시시포스는 어느 날 날지 장면을 목격한다. 제우스가 강의 신(하신·河神)인 아소포스 팔을 강제로 끌고 간다. 최고 권력자의 행위로 다들 눈을 감는데 시시포스는 하신을 만나 협상한다. 우리에게 샘물을 하나 주자면 유괴범을 알려주겠다고 제안한다. 하신은 약속을 하고 바로 실행한다.

제우스를 찾아간 하신은 팔을 내놓으라고 따진다. 대노한 제우스는 하신을 겁박해 죽어버린다. 그리고 제우

스는 저승사자인 하데스에게 시시포스를 잡아가라고 부탁한다. 머리가 좋은 시시포스는 계략을 알고 대비를 한다. 그러나 시시포스가 죽는 것은 자연적인 노화로 인해 서다. 제우스는 시시포스가 저승에서 고통을 당하도록 맞춤형 형벌을 내린다. 바로 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처럼 그리스 로마신화는 ‘저항’이라는 렌즈로 바라보면 재미난 구석을 만날 수 있다. 비이성적인 모성애로 우주 최초 쿠데타를 시도한 이는 땅의 여신 가이아였다. ‘자식이 우선이야’라는 오늘날 어머니들의 생각도 사실은 그리스로마신화 가이아의 서사와도 일정 부분 연관이 있다.

아프로디테는 여성의 미를 이야기할 때 자주 거론되는 주인공이다. 그러나 미(美)의 여신인 그녀는 거품에서 나왔다고 전해진다. 이야기인즉슨 하늘의 신 우라노스를 거세하기 위해 그의 아들 크로노스는 우라노스 생식기를 제거한다. 거대한 ‘불건’을 바다에 버렸고 파도에 흘러가다가 “거품 속에서 아프로디테가 탄생”하게 됐다는 것이다.

미의 여신이 거품에서 나왔으니 아름다움이란 한낱 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일 터다.

이렇듯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놓쳤던 신화의 디테일한 내용들을 만나게 된다. 숲에서 이색적인 나무를 만났을 때의 즐거움과 발견되는 부분이다.

〈책읽는 고양이·1만9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그리스로마신화에는 절대 권력을 거머쥔 다양한 신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뜨거운 모성애 뒷에 최초 쿠데타를 일으킨 대지의 여신, 가이아. 〈책읽는 고양이 제공〉

지리로 다르게 보는 세계

김성환 지음

폭염과 한파가 번갈아 찾아오고, 도시는 커지는데 지방은 비어간다. 식량은 남아도는데 누군가는 굶어 죽고, 병원은 많은데 정작 응급실은 멀기만 하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

‘지리로 다르게 보는 세계’는 우리가 익숙하게 지나쳐온 사회 문제들을 ‘지리’라는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게 하는 책이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지리학을 삶의 이야기로 끌어내기 위해 우리 가발 묶고 사는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차분히 풀어낸다.

저자 김성환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지리를 가르쳐온 교사다. 그래서인지 책은 학술서보다 훨씬 일상에 가깝다. 폭염을 설명할 때 제트기류 이야기를 들려주고 지방 소멸을 말할 때 병원과 학교, 교통의 문제로 풀어낸다. 기후 위기, 식량 문제, 도시와 지방의 격차, 공공의료, 지원 개발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주제들이 공간과 사람의 이야기로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책은 총 5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우리의 선택’은 폭염·식량·도시 문제를 통해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일상이 된다는 사실을 짚는다. 2부 ‘공간 불평등과 공간정의’는 왜 어떤 지역은 더 빨리 쇠퇴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위험한 환경에 놓이는지를 공간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3부 ‘연결된 세계의 상생과 공존’은 우리가 소비하고 여행하는 방식이 지구 반대편의 삶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여준다. 4부 ‘고정관념을 깨는 생각의 전환’은 익숙한 시선을 의심하며 다음을 경쟁이 아닌 가능성으로 바라보게 하고 마지막 5부 ‘자연의 섭리에서 배우는 삶의 태도’에서는 변화와 균형,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연의 이야기로 들려준다. 책을 읽고 나면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모른다. 〈아날로그글담·2만1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나를 알아차리는 법, 내려놓는 법, 다시 일어서는 법

신기율 지음

하루에도 수십 번 헌대전화를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느라 마음에 쉴 틈이 없는 시대다. 명상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신기술은 명상가는 ‘나를 알아차리는 법, 내려놓는 법, 다시 일어서는 법’에서 명상을 거친 수행이 아닌 생활의 기술로 풀어낸다. 유튜브를 통해 명상의 힘을 전하고 있는 그는 오늘 밤 잠을 편히 이루고, 내일 아침의 마음가짐을 다르게 만드는 작고 구체적인 명상 연습들을 전한다.

책은 네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풀입’에서는 흘어진 생각을 한 점으로 모으는 법을 안내한다. 숨의 각각에 집중하고 몸의 느낌을 천천히 따라가며 지금 이 순간에 밭을 딴는 연습이다. 복잡한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각각으로 돌아오는 길을 알려준다.

‘이완’의 장에서는 깊은 몸과 마음을 푸는 방법을 다룬다. 잠들기 전 호흡을 고르는 법, 침묵 속에서 감정을 바라보는 법, 일상의 동작을 천천히 느끼는 방법 등을 통해 지친 마음에 휴식을 건넨다. 명상은 방식 위에서만 하는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곁거나 차를 마시는 순간에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통찰’ 단계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가만히 들여다본다. 왜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다. 마지막 ‘회복’에서는 감사와 자애, 겸기 명상 등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저자는 자신을 몰아붙이기보다 먼저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태도가 쌓일 때 비로소 다시 일어설 힘도 자란다고 말한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한 거창한 결심 대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고르기부터 권한다. 〈아웨이크·1만85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필사의 감각

장석주 지음

연필이 종이를 스치는 사각거림,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이어지는 호흡. 필사는 문장을 눈으로 소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몸으로 통과시키는 일이다. 빠르게 읽고 잊히는 문장이 넘쳐나는 요즘 천천히 곱씹고 옮겨 적는 필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시인이자 에세이스트 장석주의 ‘이토록 멋진 문장이라면’이 개정판으로 돌아왔다. 시·소설·철학·에세이에서 가려 뽑은 명문장 68편을 담고, 곧바로 따라 쓸 수 있도록 노트 형식으로 엮었다.

괴테와 톨스토이, 카프카, 헤르만 헤세 같은 고전 작가들부터 피카醺, 박완서, 김애란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의 문장들이 고루 실렸다. 책은 이를 ‘감정을 다스려주는 문장’, ‘인생을 깨우쳐주는 문장’, ‘일상을 음미하게 하는 문장’, ‘생각을 열어주는 문장’, ‘감각을 깨우는 문장’ 등 다섯 칸으로 나눈다. 그날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한 장을 펼쳐 마음이 머무는 문장을 골라 적어볼 수 있다.

예컨대 르랑 바르트의 사랑에 대한 통찰이나 괴테의 고백, 카프카의 날 선 문장을 읽을 때와 쓸 때가 다르게 다가온다. 문장을 베껴 쓰는 동안 독자는 속도를 늦추고 손끝의 감각에 집중하며 문장 속 사유를 따라가게 된다. 활자로만 존재하던 문장이 자신의 필체를 입는 순간 문장은 다시 살아 움직인다.

각 문장 뒤에는 짧은 해설이 덧붙여 이해를 돋울뿐 중심은 어디까지나 ‘직접 써보는 시간’에 있다. 마음이 복잡할 때, 삶의 방향을 잠시 잊었을 때, 혹은 이유 없이 공허할 때 편을 들어 한 문장을 옮겨 적어보라고 권한다.

필사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하루 10분의 고요일지 모른다. 느리게 읽고 천천히 쓰는 사이, 문장은 독자의 내면에 스며들어 오래 남는 힘이 된다. 〈청림출판·2만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2026-1 광신대학교 평생교육 PROGRAM

수강생 모집

접수기간

2026. 1. 12.(월) ~ 2. 13.(금)

신청방법

방문 신청(중앙도서관 1층 교학처),
이메일 신청(gsu23417@naver.com)

교육문의

062)605-1023, 1063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 36

3월 초 개강

색채심리상담 전문가 양성과정_화 9:00

아로마 테라피스트 과정_월 10:30

파크골프 지도자 2급 과정_금 9:00 / 토 9:00

흥미만점 영어회화_금 14:00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www.kwangshin.ac.kr

3월 2일 개강, 현재 모집 중

2년 4학기 [주 2일 야간]
(월·대연/화·비대연)

여전도사 과정

증직자 과정

평신도 사역자 과정

● 지원자격 : 세례교인 이상으로서 담임 교역자 추천을 받은 자

*단, 전문인 사역자 과정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 문의 062)605-1023, 1063

2026학년도 1학기 비전신학원 신입생모집